

## 질문

수업시간에 언제나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친구들을 웃기려고 이상한 말을 크게 한다거나 앞, 뒤, 옆 사람과 끊임없이 떠든다거나 하는 행동으로 학급 수업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사실 가끔은 그 아이만 없으면 수업이 힘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으로 교사를 선택한 이상 이런 상황들에 놓일 때마다 화를 내고 수업을 망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답변

## 장평초등학교 남순임 컨설턴트

## 문제원인

학급 학생 수가 평균적으로 서른 명 정도 되니 이 아이 한 명에게만 집중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단위 수업시간에 교사는 수업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싶어 하는 반면, 그 아이는 아이들과 교류 하고 싶은 데 더 관심이 많아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힘든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수업에 전혀 흥미가 없으니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에 화를 내는 교사와는 점점 멀어지고 선생님을 따르는 학급 친구들에게는 한심한 아이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 누적되어 그 아이는 어느 순간 문제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 〈문제해결〉

### 해결가능한 대안

대안 ① : B L W 처방 - 아이를 믿으라 사랑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대안 ② : M F 처방 - 친구를 이해할 기회를 주어라

대안 ③ : W T 처방 - 학급에서 벌어지는 긍정적 일을 맡겨라



### 최적의 해결방안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학년이나 지역을 막론하고 교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교사인 직업을 선택한 이상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맞이하게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교사는 이런 아이들과 씨름을 하며 지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B L W 처방을 권합니다. 이것은 Believe, Love, Wait 의 첫 글자입니다. 그 아이가 수업시간에 문제 행동을 야기했을 때 학급의 다른 아이들이 한꺼번에 야유를 한다거나 비난을 붓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데 학급의 아이들을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칠 수도 있고 문제를 발생시킨 그 아이를 향해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 모두 학급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벌어지는 그 순간 학급의 아이들에게 문제를 일으킨 “○○를 믿으라 괜찮아. ○○는 자신이 알아서 조절하여 잘 처리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 아이는 늘 그랬어요” 라며 소리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역시 한번 더 “그래 ○○가 자주 그랬나보다. 너희들도 수업시간에 갑자기 집중이 안 되니 속상하구나. 그 마음도 이해 가는군.” “○○야 우리는 너를 믿는다. 잘 처리해보자, 선생님과 친구들이 기다릴게. 지금 처리하기가 어려우면 쉬는 시간으로 잠시 넘길 수 있으면 수업을 하는 우리에게 더 합리적이겠는데?” 라고 말하며 문제 상황을 여유롭게 바라봅니다. 보통, 학급의 아이들이 함께 동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더 흥분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인도에 혼자 있을 때

는 자신의 행동이 우습고 싱거워져서 쉬이 그만두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될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좀 더 격하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여 아이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교사의 얼굴과 편안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행동은 가정과 뇌, 건강상태 등 많은 문제들이 맞물려서 벌어지는 상황이므로 선부른 속단으로 그 아이를 평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기다려주는 마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교사로서의 삶의 철학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로 M F 처방을 권합니다. 이는 Meet Friend의 첫 글자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집안 환경, 뇌의 문제, 신체적 건강상태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감정을 공감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할 때 더 악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그 아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예 교사 자신만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 사랑을 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후나 쉬는 시간에 그 아이의 취미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 사소한 질문이라도 하여 ○○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종종 그 아이와 대화가 되는 친구를 갑자기 부르니다. “○○야, BB도 너랑 비슷한 생각을 하네!” 이런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다보면 친구들 간에 이해심이 생기고 ○○는 원래 문제아라는 무서운 규정은 내리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한가지 더 권하는 방법으로 W T입니다. Work with Teacher에서 따온 W와 T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에게 “공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일”을 맡겨서 보고하게 합니다. 가령 누가 수업시간에 다른 친구의 발표를 잘 듣는가? 누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하는가? 선생님은 화를 하루에 언제 냈는가? 왜 그랬는가? 또는 선생님은 공부 외에 어떤 말썽들을 하시는가? 선생님의 친구는 어떤 선생님인가? 누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등등 이런 일들에 관해 매일 말하는 훈련을 한 달 정도만 시키면

그 아이는 어느새 교사의 옆에 와 웃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또 문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하겠지만 또다시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일을 반복한다면 그 문제행동은 좀 더 약해지고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선생님과 1년의 좋은 영향은 그 아이의 인생에 큰 힘이 되어준다는 신념으로 학생을 언제나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